

분류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	"구원 역사의 비밀"
성경	에베소서 3:14~21
일시	2018년 04월 15일
장소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설교	항 병철 목사

♣ 성경말씀 (에베소서 3:14~21)

- 14. 이렇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 15.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 16.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 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 19.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 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 요약 자료 ♣

구원 역사의 비밀 (에베소서 3:14~21)

1. 전도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 1)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 간했습니다. (에베소서 3:1)
- 2)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경륜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3:2)
- 3) 하나님이 계시로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3~4)

2. 선교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 1) 이방인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6)
- 2)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7)
- 3)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14~15)

3. 사랑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 1)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집니다. (에베소서 3:17)
- 2)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3:18)
- 3)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3:19).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녹취 자료 ♣

•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고 응답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번 4월 달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다음 4월 달은 빌립보서를 보셨죠? 그 다음 달은 골로새서를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세 달을 아주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전부 다 복음이 감춰져 있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성경 66권 안에 있는 인물들 중에 최고 응답

받았던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복음의 진수와 엑기스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안에 깊이깊이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달 동안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런 응답들을 체험하시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 Totally. 저는 미국 와가지고 이... 영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왜냐? 한국에서는 토털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왜 오니까 토들... 이렇게 얘기하더라. 왜 티(T)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발음을 티(T)라고 안 하는지 이게 막 열 받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 와서 차를 이제 이렇게 구입해야 되잖은가? 사서 이제 와이프랑 이제 가족들이 차를 타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제 방송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라디오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 들었는데 라디오를 틀었는데 뭐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다. 그래서 저는 볼륨이 낮아서 그러니까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는 줄 알고 볼륨을 계속 높였다. 요즘 이제 라디오를 틀면 보통 숫자가 이렇게 나온다. 디지털로. 한 12, 13 이렇게 하면 크게 들립니다. 자... 한 12, 13 이렇게 틀고 있었는데 틀었는데 뭐 말인지 안 들리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20정도까지 올렸다. 계속 안 들리는 거다. 뭐 소린지. '이게 소리가 작아서 그런가보다.' 하고 계속 더 올렸다. 24, 25... 그러니까 막 얼마나 소리가 왕왕 크게 귀가 아플 정도로 울리는가. 제 와이프가 얼마나 얌전한 사람인데 30 가까이 볼륨이 올라가니까 막 화를 내더라. "귀 아파 죽겠다."면서... "왜 자꾸 볼륨을 올리냐?"고. 안 들려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저는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영어가 안 들리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에피소드가... 여전히 계속 안 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가끔 가다가 영어가 쓰고 싶을 때가 있더라. 그 정도로 영어를 못 하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정말... 또 써야지. Totally 모든 것 여러분들 회복하시는 축복!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오늘 한 주간이다. 어... 대략 제가 개인적으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됐지 않았나? 이런 그... 생각이 드는데... 어... 그 전 쯤에 저에게 두 가지 굉장한 의문이 있었다. 어떤 의문이었나? 하면은... 어... 새벽기도 가고... 뭐, 사역자니까.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또... 사역도 하고... 나름 기도 한다고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다. 저에게...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냐?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다. 사역자가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는가. 또 하나 고민은... 우리 다락방에서는 전도 훈련을 받는다. 한국에 있으면 매주 집회가 있다. 대략 그 당시에 제가 한... 20년 가까이 다락방 안에 몸담고 매주 훈련을 받아 왔다. 한... 17년, 18년 정도 됐을 텐 것 같다. 지금 이제 한 25년 됐는데. 전도 훈련을 매주 받는데 왜 전도 역사가 나에게 안 일어나냐? 이 고민이 되는 거다. 훈련 받으면... 전도 훈련 받으면 현장도 간다. 사역도 한다. 근데 전도가 안 되는 거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굉장히 아주 심각한 고민 상태에 빠졌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 저는 목회자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목회자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이 두 가지가 영원히 계속 안 됐다? 목사 하면 안 된다. 목회 하면 안 된다. 기도 응답 못 누리는 목사가 뭐 목산가? 전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목산가? 이런 이제 심각한 상태에 딱 직면을 했는데... 얼마나 제가 고민을 깊이 했는지 모른다. 이게 한참을 고민을 했다. 어느 정도 했냐? 막 시달린 정도다. 뭐... 우울증을 제가 앓거나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밥맛이 없을 정도로 우울증 같은 그런 상

태에 들어갈 정도로 제가 고민을 하고 시달렸다.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 였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저에게 중요한 답을 이렇게 찾게 하셨다. 그 답을 찾아가면서 제 눈에 들어오고 제 마음에 깊이깊이 들어온 몇 개의 성경구절이 있다. 그 성경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가?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답을 찾으셔야 된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응답을 못 받나?’ 생각해보셔야 된다 말이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자녀, 내 하는 산업에 나타나나?’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답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너희 속사람을...”**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다. 이걸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 탁! 마음에 부딪치니까... 다음 달에 볼건데... 빌립보 4장 23절... 빌립보는 4장까지 있고 23절은 맨 마지막 절이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길 안 하고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뭘 말하는 건가? “너희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구약성경으로 가면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의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 같은가? “너희 속사람을 기경하라” 여러분들 ‘기경’ 하시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겨울 동안에 땅이 얼어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추웠기 때문에 그 땅 위에 그 살던 벌레들이 땅을 파고 깊이 들어가서 땅 속에 그대로 이제 추위를 피해서 살고 있다. 봄이 되면 쟁기를 가지고... 요즘은 이제 기계... 트랙터다. 이걸 가지고 땅을 뒤집어준다. 그래서 흙을 부드럽게도 하고... 뒤집어 주는 것은 땅 밑에 있는 이 벌레들, 벌레집을 뒤집어서 햇볕을 보게 하면서 햇빛에 말려 죽이는 이런 역할도 하는 거다. 기경해서 씨를 심어야 그 씨가 자리를 잡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고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속사람을 기경하라.”**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의미를 지금 이해하시겠죠? 이런 말씀이 저에게 다가 오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이 말씀이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다. **“내 아들이. 그럼으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어디에 쌓여야 하는가? 여러분들의 속사람에 은혜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 여러분들이 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응답 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영적 상태에...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야 ‘전도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답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미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 하셔야 할 단어 하나를 이미 제가 소개를 드렸다. ‘속사람의 상태.’ 제가 구원은 받았는데 에베소 2장... 지난주에 말씀 들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2장 2절에 **“세상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속사람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

으니까 구원은 받았지만은... 예수 영접 했으니까. 속사람의 상태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응답을 받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더 기적이다.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들, 오늘 기억 하셔야 될 것이 뭐냐하면 영적인 것은 과학이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다. 한 치의 오차도 없단 말이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상태에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펼쳐져 갈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상태가 여러분들의 삶에 흐름을 만든단 말이다. 자, 사람이 착한 것도 중요하다. 성실한 것도 중요하다. 삶의 태도가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다.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부모들 입장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들이 행복한가? 그것도 중요하고 돈과 지위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자녀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이나? 구원은 받았는데... 명찰은 램넛트에 강건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녀냐? 이걸 보셔야 된다. 그것에 따라서 삶을 사는 과정과 결론이 결정난단 말이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여야 된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 하시면 왜 내가 오늘 예배 해야 하는지...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사역자들과 여기 교사들은 어떤 중심으로 램넛트들에게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지... 전부 이해하게 된다 말이다. 이 ‘속사람’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다 틀리게 한단 말이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다. ^^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이해하시면 정말 여러분들... 응답 받으실 수 있다. 이 오늘 이 말씀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가장 신앙생활에 기본이요 근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아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도 응답 받기 힘들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 하시겠는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3장 16절을 보시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좌우로 축복하시라.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바란다.’ 여러분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열심히 기도 안 하는데 응답이 온단 말이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은 노는데 전도역사 일어난단 말이다. ^^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다. 저 한국에 있을 때 1년 365일 전도캠프 한다고 돌아다니는 분이 계셨다. 전도캠프를 1년 365일 하는데 전도열매가 하나도 없다. 교회,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 개인... 응답 못 받는다. 모르고 돌아다니신단 말이다. 여러분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강건하게 되면 놀러 다니는데 전도역사 일어난다. 여러분들, 이 비밀을 오늘 깨달으셔야 되고 찾아 내셔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되니까 아까 소개 해드렸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 되는 거다.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와 교인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 지어다.”** 왜 이렇게 축복했겠나? 이해 되는거다. 그럼으로 너희는... **“그럼으로 내 아들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너는 사람들이 네가 어리다고 연약하다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너는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네 자신을 스스로 연단해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이 일을 매일 하도록 해라. 뭐 말인지 아시겠는가?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배움이 적어도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다. 요셉은 노예였는데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주인이면서 세계를 다스렸던 애굽의 2인자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함부로 못 대했던 말이다.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축복이다. 여러분들이 혹시 상사에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휘둘리시는가? 여러분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안 휘둘리시게 된단 말이다. 환경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해서 여러분들이 휘둘리는가? 문제와 사건을 격어서 여러분들이 깊은 어려움과 지금 심란한 문제 속에 여러분이 빠져 있는가? 여러분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흔들수가 없다. 믿음 가지시면 된다. 하나님 살아계신단 말이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다. 그래서 모든 걱정을 다 끝내버려라. 모든 것을 다 이 세 달 동안에 회복하셔라. 그러시면 된다. 아까 소개드렸던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를 찾아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것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진도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열심히 못 사는게 문제인가? 여러분들 지식이 없는게 문제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결론을 하나 딱 내리시면 된다. 이거 하나 이해하면 다 이해 된다. 영적인 것은 과학이다. 과학이란 것은 뭐가? 정확하다는 거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상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상태가 여러분들 인생의 흐름을 결정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건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다. 성경에 몇 명 예를 들어 보겠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셉이다.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속사람이 강건한 축복을 누렸고 준비 됐던 사람이다.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다. 환도 뼈를 하나님의 천사가 쳐서 몸이 불편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도의 축복을 하나님이 찾아내게 하셨다. 이 야곱에게.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내려왔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야곱이다. 그러니까 열두 아들들 중에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이 요셉을 야곱이 늘 품에 끼고 살았다. 아버지 품에... 열두 아들 중에 늘... 파파보이(Papa Boy)다. 늘 옆에 있고 이 요셉만 색동옷 입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사랑을 해주니까 형들이 그것을 시기한 것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그 아버지에게 늘 붙어 있으면서 무얼 배웠겠는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늘면서... 자면서... 말하면서... 밥먹으면서 물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야곱이 가지고 있던 복음과...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야곱이 가지고 있던 기도의 비밀이 자연스럽게 이 요셉에게 계속 전달 돼 온 것이다. 어느정도?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볼 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볼 만큼... ‘이 지구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세계사를 볼 만큼 영적 상태가... 속사람이 강건했던 사람이

이 요셉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노예로 팔려갔다? 노예라는 환경이 문제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돼야 정상이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 물론 새신자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강조하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내가 듣고 영접하고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있는데 왜 나에게 문제는 계속 됩니까?” 자기는 예수 믿으면 문제 안 올줄 알았던단다. 맞는가? 틀리는가? 환경은 안 바뀐단 말이다. 문제는 안 사라진단 말이다. 뭐가 달라진 것인가? 속사람의 상태가 달라진 거다. 그래서 똑같이 문제가 오지만 속사람이 준비 안 된 사람은 문제를 통해서 재앙과 실과와 멸망으로 가지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여러분들은 그 문제와 환경과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전부 응답이요 축복인줄 믿는다. 이게 요셉이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누릴 축복이다. 걱정할게 없는거다. 그렇니까. 환경이 문제 되는가? 뭐... 이 문제가 여러분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가? 아니란 말이다. 그렇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준비 되었던 모세는 홍해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문제를 보는 눈이다. 구원은 받았는데 옛날의 것처럼 응답 못받고 진도 안 났던 그 시절의 것처럼 이 속사람의 상태가 그랬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피 바르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 나왔다.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시간도 없었고 그런 준비도 안 되어 있었다. 문제 앞에서 “왜 우리를 구원 했냐?” “노예로 사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나오게 만들었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모세 너는 뭐냐?” 막 대드는 거다. 지금 뭐 일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분노가 많이 나온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오늘 다들 답을 찾으시면 된다. 그래서 분노하고 짜증 내시면서... 나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 않은가? 입 막아서 이게 안 나오게 아니란 말이다. 계속 분노, 짜증... 이렇게 그저 불평, 불만 하면서 뭐 하면 되는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된다. 어느 날 여러분들 입에서 짜증, 불평, 불만이 사라질 것이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뭐... 운동을 워낙 좋아하니까. 30대 후반에 너무도 늦으막이 그 야구 동호회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갔다. 가가지고 보니까 전부 20대 후반, 30대 중반까지 이렇게 아주 팔팔한 나이에... 야구는 조금 격한 운동이고 순발력을 요하는 거라서 나이들면 하기 힘들다. 물론 뭐 30대 후반이 나이든 것은 아닌데... ^^ 그래서 갔단 말이다. 갔는데 처음에는 후보를 시켜주더라. 저의 진면모를 모르고 후보... 아, 똑같이 회비 내는데 게임을 뛰게 안 하는 거다. 가끔 가다가 대타로 한 번씩 써주더라. 근데 그 젊은 애들을 제치고 1년만에 제가 교체 멤버에서 1번 톱 타자까지 갔다. 그정도로 좀 이렇게 운동의 감각이 있나보다. 그래서 이제 재밌게 미국 오기 전까지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 운동 하는데 한... 나이 한 5년 정도 연배가 좀 아떨까요. 30대 초, 중반정도 된 후배가... 제가 목산줄 아니까 물어보더라. 이 친구는 입만 열면 욕이다. 와~ 난 그렇게 욕 잘하는 사람은 처음 만났다. 제가 군대도 현역을 갔다왔지만 군대에서도 그정도 욕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다. 군대는 전부 욕이지 않은가? 막 제가 목산줄 아는데... 이제 형님, 동생 한다.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는. “형님, 목사님, 막 17, 18, 19...” 막 이런식이다. 뭐 A, B, C, D, E, F, G... 막 계속 그냥 막... 너무나 황당하다. 어느정도 욕이 심하나? 자기가 그러더라. 자기의 에피소드를 얘기 하는데... 와이프하고 명절 되면은 처갓집을 갈 것 아닌가? 장인어른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17, 18, 19가 나올 정도니까. 이정도로 이 친구 속에 이게... 욕을 달고 사는 거다. 직장생활은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근데 또 돈은 잘 번다. 황당하더라. 그러더니 이 친구가 그제 이제 직장에서 또 가족들 관계에서 이렇게 뭐가 걸렸나 보더라. 한번은 그 운동하는 중간에 이게 수비하다가 공격으로 전환하면 타자만 한 명 나가니까 쉬고 있지 않은가? 저한테 물어보더라. “형님” 그러더라. 형님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조금 그렇더라. “왜 그러냐?” 그래더니, 심각한 고민이 있는데 상담 좀 해주라는 거다. 그래서 “왜냐?” 그랬다. 그러면서 쪽~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장인어른하고 그 명절에... 이번에 가가지고 이제 그 식사하고 한 잔 하면서 장인어른한테 욕을 해버렸다는 거다. “야! 이런 17, 18, 19야.” 이정도로 욕이 막 그냥 나오는 거다. “나, 이... 왜 이럽니까? 이거...” 이 것 때문에 지금 막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들어 죽겠다는 거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했다. 그 친구가 그러더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단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 줬다. “너, 속사람의... 너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또 따로 있는데... 그 속에 욕이 가득해서 그렇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쳐도 안 될 거다.” 딱 그랬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하더라. “나중에 내가 이야기 해줄게.” 지금은 이제 운동 중이니까.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 친구한테 전도지를 준비해 와가지고 전도지를 주면서 이 복음을 설명했다. “너, 속사람을 뒤집어야 된다.” 노력해도 안 된다. 욕 나오는데... 신경질 나는데... 머리뚜껑 누른다고 머리뚜껑이 안 열리는가? 아니란 말이다. 여러분들 속사람을 바꾸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한 사람만 더 예를 들겠다. 많이 있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열왕기하 2장에 많은 생도들 중에 엘리사는 한 생도다. 다른 많은 생도들의 관심은 베엘에 있는 이 스승이 세워 놓은 교회, 여리고에 스승이 세워 놓은 그 교회. 이 자리 차지하려고 관심이 전부 거기에 가 있었다. 자리 차지하는거... 그죠? 내... 편안하게 목회를 어떻게 할 건가? 엘리사의 관심이 뭐였는가? 엘리사가 물었죠? “너, 왜 나를 자꾸 귀찮게 계속 따라오냐?” “당신에게 있던 그 영감의 감절이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미국에 있는게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 간다고 편안하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계시고 누구를 만나도 아무 상관없는 비밀은 뭐냐? 여러분들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거다. “영감의 감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무엇이 중요한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시대를 뒤집는다. 이 ‘속사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시대를 뒤집는단 말이다. 한 사람 밖에 없는데 그 ‘한 사람’이 시대를 뒤집는 거다. 이정도로 속사람이라는 이 비밀은 모든 것이고 엄청난 거다. 세계복음화에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요셉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시대는 뒤집어지는 거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그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서론은 충분히 했으니까... 이해 되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 첫 번째, 내가 누군가? 이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

의 ‘절대 신분’을 놓치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의 신분을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의 시작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다. 지난 주에 봤는데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시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들이 구원 받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이 신분과 정체성을 확실하게 회복하시게 되시기를 바란다. 이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그 시작이다.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 받았는가?를 아는 것이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바로 지난 주 말씀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멸망 될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구원 하셨다.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 내셨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 하셨다. 이게 구원이다. 이 어마어마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말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들을 멸망 받게 하신다? 그대 대충 인생 살다가 그대 너는 그저그런 인생 살다가 그냥 천국 와라? 말 되는가? 안 되는가? 아니란 말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예비하신 줄 믿는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살려라! 그것을 통해서 램넌트를 살려라! 그것을 통해서 이 휴스턴과 미주를 살려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다. 내가 누군가? 여러분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단 말이다. **“그럼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었다. 영적 상태, 속사람이 뒤집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일어났도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 말이다. 겁날 것이 없다. 지난... 지난 달이었나? 고린도후서를 봤다. 4장 7절로 11절. **“우겨싸임을 당해도 싸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거꾸러뜨림을 당했나? 멸망하지 않는다.”** 왜냐?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속사람’이다. ‘신분’ 이 정체성, 여러분들, 확실하게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오늘 에베소서 1장에 써 있잖은가?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구원 하시기로 계획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 하시기로 예정하셨다.” 7절에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 13절, 14절에 **“성령으로 인치셨다.”** 성령으로 인치셨는데 누가 이것을 바꿀 것인가? 인치셨다. 도장 찍었는데, 누가 바꿀 것인가? 여러분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 ‘절대 신분.’ 하나님의 절대 역사 속에 있는 사람. 작년이... 2017년도가 루터가 종교개혁 한 500주년 기념하는 해였다. 우리가 기념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고 했다. 이 루터가 종교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여기서 있다.”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말이다.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 한국 말은 그냥 ‘Here I am.’ 이거겠죠? 뭐... I’m here. 그럴수도 있겠죠? 그런데 영어를 보면은 그렇게 안 써있다. ‘Here I stand.’ 여러분들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제가 듣는 영어는 안 되도 공부하는 거는 좀 된다. 스탠드(Stand)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여기 서있습니다.” “Here I stand.” 뭔가? 하나님의 절대 역사 앞에 내가 당신들 앞에 서있다. 하려면 마음대로 해라. 난 괜찮다. 이게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들, 이 정도로 강건하는... 속사람이 강건하는 이 축복 회복하기 바란다. 문제 앞에 떨리는가? 왜 떠는가? 떠셔도 괜찮다. 뭐 떨리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떠서면서 “I’m O.K.” 이러면 된다. 떨리는 건 ‘나’고 내 속사람은 괜찮다. 그죠? 답답한가? 답답하시면 된다. 그럼 뭐 답답한게 문제가? 저는 미국 와서 보니까 쫓 이렇게 시달릴 때 있더라.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것이냐?’ 괜찮다. 시달리면서 속사람은 ‘I’m O.K.’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절대 구원 속에 내가 있다. 괜찮단 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는가? 이것을 회복하시면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역사를 여러분들은 누릴 사람이다. 그거다. 첫 번째는 절대 역사 속에 있는 사람. 신분을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역사를 누릴 사람이란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나 하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났다.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는데 나에게 삶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 문제가 뭔가? 나에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운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란다. 그래서 문제를 응답으로 누리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라.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비밀 중의 비밀이다. 아까 에베소서 1장 11장 소개해 드렸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 수가 없다.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겨 있던 말이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오차가 없다. 문제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제가 좋아 하는 단어는 ‘계획’, ‘목적’ 이것 보다는 ‘의도’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저는 좋아한다.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맞닥뜨리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겼다면 나는요 승리할 수 밖에 없고 응답을 누릴 수 밖에 없다. 예를 두 가지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지금 시간이 또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나라고 하는 여자에게 아이를 주지 않았다. 한나는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편에서는 이 한나에게 아이를 주는게 문제가 아니다. 이해 되시는가? 한나가 문제 때문에 고민고민하고 답답하고 시달리고 우울증, 공황증이 왔는지도 모른다. 그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의도를 본 것이다. ‘그렇구나! 내가 자식이 낳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를 살릴 램턴트, 나실인을 낳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냈단 말이다. 문제가 시대를 살리는 응답으로 뒤집어졌다. 여러분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이 문제와 싸울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다. 그래야 그 속에 의도를 찾아내고 응답을 누리단 말이다. 만약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저주 속에 있었을 것이다. 영원토록 재앙 속에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하는가? 복음, 영원히 회복 안 됐을지도 모른다. 왜냐? 사사시대 350년만에 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 번제를 회복했단 말이다. 번제가 뭔가? 피 제사. 앞에 두 번... 350년 사이에 두 번 피 제사, 번제 있었는데 그건 진짜 피 제사 아니다. 정확히 성경을 보시라. 하나님이 원

했던 그 제사가 아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막 이랬다. 하나님이 원했던 가장 정확한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 사무엘인데 답답한 일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태어나는가? 여러분들이 격었던 과거의 문제... 혹은 현재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답답한 문제... 남들은 격지 않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냐? 그런 것들... 있을 것이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여러분들 기도로 싸우시기 바란다. 하나님의 절대 의도를 찾아내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시대를 뒤집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니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렇지가 않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의도를 못 찾으니까. 그래서 응답을 못 누리니까 평범한 사람으로 남는거지 이 문제와 싸워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의도를 찾아낸다면 여러분들은 미래를 살리고도 남을 응답을 누리시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에게 법적으로 쫓기게 만드셨다. 이 답답한 일을 격지 않았다면 다윗은 사울과 같은 왕이 되었을 것이다. 자리 지켜야 하고 내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되고 재산 모아야 되고 영웅이란 소리 들어야 되고... 다윗이 십 수년을 쫓기면서 생각한 거다. ‘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꺾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 그렇구나! 사울과 같은 왕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너는 다른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있었던 말이다. 그러니까 쫓기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오직 언약궤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오직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던 말이다. 여러분들, 답답하시다. 좀 더 답답해 하시라. 답답하고 답답하고 답답해야 답 찾는단 말이다. 그죠? 그래서 답답함도 누리시면 안 답답하다. 제가 그렇더라. 막 시달리는데 ‘이게 왜 답이 안 나오는가?’ ‘왜 응답을 못 받나?’ ‘왜 전도가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목사님. ‘목사 안수받고 그냥 택시 운전하라는거냐?’ 고민 되더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답답하니깐 그 답답함도 편안하더라. 답답함이 누리지더라. 답을 딱 찾았다. 여러분들, 괜찮다. 답답해도 괜찮다. I’m O.K. 그냥 오케이란 말이다. 괜찮다. 어... 승리하게 되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이 하나님의 절대 역사 속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이 절대 역사를 누릴 사람들... 누리는데 거에 포인트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역사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셔라. 아까도 이야기 했다. 우리 속사람은 하루, 이틀만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거나 뒤집어 지지를 않는다. 자, 예배 한 번 빠져서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오는게 아니다. 예배 한 번 드렸더니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는게 아니다. 단기전이 아니라 이 속사람은 한 번에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살아났다. 아니란 말이다. 이것은 굉장히 일심, 전심, 지속이 필요한 장기전의 싸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속적으로 승리하시는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은 일 주일에 한번 예배 드려가지고는 속사람이 뒤집어지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목은 땅이 기경되는 것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어렵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절대 역사를 누리는 개인의 시간을 가져라. ‘정시예배’도 좋고 ‘정시기도’도 좋고 ‘묵상’도 좋고 ‘가정예배’도 좋고 혹은 부부나 가족간 자녀들과 포럼하는 것도 좋다.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시간을 가져라. 저는 매일 혼자 새벽기도 한다. 매일 저녁에 우리가

죽들과 함께 가정예배... 매일 가정예배 드린다. 중간에 반드시 정시예배 하거나 정시찬송하는 시간을 갖는다. 왜 하는가? 아니까 하는 거다. 아니깐 하는 거다. 이게 쌓여서... 여러분들 제가 매일 예배 하다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게 10년이 쌓였다. 이게 20년이 쌓였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저는 상상이 안 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이 시간을 매일 20년, 30년을 가지면 그 뒤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은 분명하다. 이것만은 확실하다. 여러분들이 하시란 말이다. 왜 어려운가? 어려운거 쳐다보지 마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시라. 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 결론을 맺겠다. 여러분들이 요렇게만 조금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지속하다가 보면은 뭐가 오냐? 뭐 크게 한 것같지도 않은데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 왜냐? 속사람이 바뀌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여유가 생긴다. 여유가 생기면 이제 주변을 돌아보게 된다. 이것을 전도와 선교라고 한다. 여러분들에게 왜 전도, 선교... 이 역사가 (여기있는 분들 말고)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본인이 영적인 힘이 없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다. 여유가 없으니까 내 문제, 내 인생 보기도 바쁘다. 주변이 돌아보지지를 않으니까 전도가 안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오늘 여기 강의 안에 있는 1번, 2번이다. 1번, 2번... 단숨에 끝났다.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전도, 선교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야 된단 말이다. 그럼 마지막 3번은 뭐가?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지금 자매 하나가 지금 아직 이야기... 아직 어리니까 그렇죠? 이 대화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겠죠? 어리니까. 아이를 안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어느정도 나이가 되면 얘기가 될 것 아닌가? 그죠? 그럼 부모하고 이야기가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사랑했다고 깨달은 것은 소통이 된 시점일 수도 있지만 한참을 살고 고등학교가 될 수도 있고 대학때가 될 수도 있고 결혼하고 시집, 장가 가서 아이 낳아보니까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단가!' '얼마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고생했단가!' 그 때 깨닫는단 말이다. 그러면 말을 못 했을 때는 엄마가 안 사랑했는가? 양육과정 속에서는 엄마가 안 사랑해서 몰랐는가? 아빠가 사랑을 안 줘서 몰랐는가? 아니다. 깨달을 시점이 철 들어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는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내가 누군가 신분이 확실하고 문제, 위기 속에서 그 신분이 확인 되면서 응답을 누리고... 그렇죠? 이 시간을 매일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너무나 절묘하구나!' 알게 된단 말이다. 그 말이 오늘 3번이다. 아까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 읽으셨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함을 깨달아." 알게 된단 말이다. 고백하게 된단 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전하게 된단 말이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을 알고..." 어느정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응답하실 거냐? 20절에 보시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이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응답하실 것이다. 힘 내시면 된다. I'm O.K. 따라 해보시라. I'm O.K. 괜찮단 말이다.

답답하신가? 괜찮다. 좀 답답한게 뭐 문제되는가? 괜찮단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중요한 응답 누리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기도하고 정리하겠는데...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실천을 반드시 하셔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것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더 올 수 있다. 조금 길어져서 그런데... 한 예만 들어보겠다. 어떤 분이 그 일반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저희 교회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 복음운동 하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몇 년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가셨다. 떠나가면서 한 이야기가 있다. 뭐라 그랬냐? "다락방 하는 교회 오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분들 있을 것이다. 일반 교회 신앙생활 했을 때 나는 행복했던 말이다. 다락방 하는 교회 오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영적으로 너무 힘들다. 왜 그런가? 여러분들, 요 건물 뒤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누가 버렸는지 모르는 널빤지 같은게 있을 것이다. 건물 뒤에. 딱 뒤집어 보시라. 뒤집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모든 벌레가 거기에 다 있을 거다. 왜 그런가? 뒤집는 순간에 빛이 딱 들어가니까 이게 확 뒤집어지는 거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께서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고 마음먹는 순간에 벌써 사단이 알고 여러분들 속을 뒤집는 거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 왜 문제가 더 오냐? 나는 왜 더 힘드냐? 더 시달리냐? 왜 그런지 아시겠죠? 어둠속에 빛이 임하니까. 이것을 모르고 못 견디고 나가버리는 거다. 그러면 다시 덮이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다. 여러분들, 어느 단계에 올라설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하셔야. 은혜를 쌓고 쌓고 또 쌓으셔야.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딱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풀려 온단 말이다. 쌓여야 된다. 망하는 것도 쌓여서 망하지 단번에 어려움 오는게 아니란 말이다. 응답 오는 것도 쌓여서 기적이 오고 응답이 오는거지 단번에 오는게 아니란 말이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b>휴스턴 안디옥 교회 (http://www.houstonantioch.org)</b>	
담임목사:	이 응남 목사
교육목사:	황 병철 목사
전도사:	권 예나 전도사
연락처:	(713) 907-0854
이메일:	rutc-christ@hotmail.com
자료작성:	휴스턴 안디옥교회 (배성일 장로)